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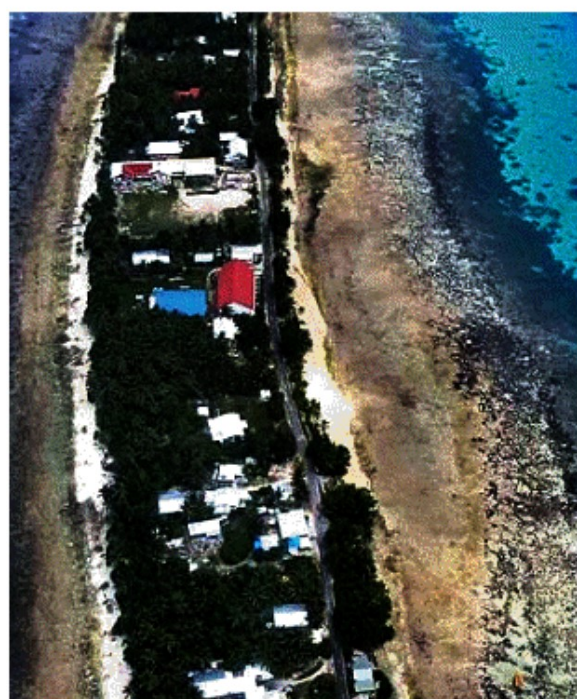
K-농업기술, 볼리비아 등 '개도국 식량 해결사'로

작년까지 17개국서 55개 ODA
볼리비아 감자 생산량 2배 증가
국내 최초 투발루서 어업까지도

‘K-농업기술’이 개도국의 농업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다. 농업 생산량 향상은 물론 생활 환경을 개선해 개도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에서 정한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적격 수혜국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까지 17개국에서 55개의 ODA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37개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UN 산하 국제기구와 협력해 추진하는 다자성양자 ODA 사업의 위탁 시행기관으로 지정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 10개 국제기구와 함께 1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투발루 어촌뉴딜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개발 예정지. 사진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지정리부터 용배수로, 관개용 저수지 구축, 작물 생산 및 보급체계 지원은 물론 식수 개발, 마을 도로포장, 다목적 창고 건립 등 수혜국 농촌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축산물 가공시설 구축뿐만 아니라 채소 계약재배 단지 조성, 영농기술 보급도 주된 활동 중 하나다.

우리의 씨감자 생산기술을 전수받은 볼리비아에서는 감자 생산량이 2배

증가했고, 젖소의 인공수정, 사양관리 등 낙농기술이 전파된 우간다에서는 우유 생산량이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베트남은 농어촌공사가 지원한 농산물 저장유통센터를 통해 13개국에 지역 농산물을 수출하며 농업소득이 30% 증가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농업 인프라와 영농기술 지원으로 사업대상 지구 주민들의 소득이 35% 증가했고,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에서는 진단 건수가 246% 늘었고, 검사 시간도 10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됐다.

이같은 ODA 영역은 올해부터 해외 어업·어촌으로까지 확대됐다. 올해 1월에는 앞으로 4년간 원양 핵심 어장의 안정적인 어획량 확보를 위해 국내 최초로 남태평양 투발루에서 ODA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원양선사의 입어료가 동결되고, 입어허가선박이 증가해 어획량은 연간 1800톤 이상 증가, 사업이 추진되는 4년 동안의 민간 수익은 17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